

광주 회사 영업택시 6부제 강제시행

市, 28년 만에 8부제에서 개선
76社 3471대…위반땐 과징금

다음달 중순부터 광주지역 영업용 회사 택시 6부제가 시행된다.

광주시는 운송서비스 개선과 교통 사고 감소, 에너지 절약, 운전자 수급 난 해소 등을 위해 다음달 2일자로 일반 영업용 택시 6부제 시행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먼저 부제조정을 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6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광주지역 영업용 택시는 지

난 1979년 4월 6부제 시행 이후 1984년 12월 8부제로 바뀐 뒤 28년 만에 또다시 6부제로 전환하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초부터 택시 부제 도입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조합 측과 수차례 협상을 해왔으나 조합 측이 경영손실 등을 주장하며 8부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성 광주 대중교통과장은 “인천과 광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들은 6부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운송조합

측이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마무리하고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 4800명은 이를 일하고 하루 휴무하는 3부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영업용 택시 6부제 시행은 운전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6부제를 준수하지 않는 택시운수업체는 1회 위반에 120만원, 2회 위반에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광주시는 6부제로 인한 택시업체의 손실 보전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

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6부제 시행 이후 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6부제가 시행되면 하루 144대의 택시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택시업계 전체적으로 1년에 22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업체들의 경영개선을 통해 3억5000만원 수준까지 손실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광주에서는 76개 택시업체가 3471대의 영업용 택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3037대가 운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 부족, 승객감소 등으로 실제로는 2600여대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보조금 주더니 근저당 설정…되레 자금확보난”

대마산단 등 수도권 이전 기업 10여곳 사업 지연

정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 수도권으로 물리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지 확보나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해당 기업이 원래 목적대로 투자하고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할 자치단체가 사업 부지에 근저당 설정 또는 가동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기업들은 그러나 이 지원기준이 금융권을 통한 이전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기업들의 경우 이전 부지를 매입, 공장을 세우면서 금융권에서 부지를 담보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근저당이 설정되면서 순위 담

보를 확보하지 못한 금융권이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부지에 공장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까지 기존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규 이전에 따른 투자금 확보도 쉽지 않아 일부 기업은 착공을 미루는 사례도 빛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군도 지난해 11개 기업이 대마산단 내 분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2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같은 문제로 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 형편이다.

영광군이 근저당 설정 대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연간 2.1%)와 신

용 등급에 따라 보증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예탁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꺼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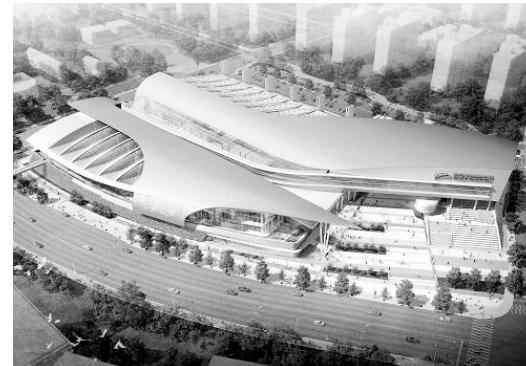
전남도는 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전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관련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광군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2순위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보증보험 수수료도 7년분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1년씩 나눠 받게 하는 방안을 보증보험사에 요청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벼안정대책비 반발 내일 대규모 차량시위

제2컨벤션센터 설계현상공모 당선작



광주 제2컨벤션센터 설계현상공모 당선작이 29일 선정됐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옆 부지에 증축될 제2컨벤션센터는 총 5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8월 착공되며 내년 4월 원공될 예정이다. 당선작은 ‘디자인캠프 문박의 작품’이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의 벼경영안정대책비 지급 방식에 반발, 광주·전남 지역 농민단체가 대규모 차량시위를 하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29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벼경영안정대책비 전액을 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2일 도청 앞에서 차량 1000대 시위를 벌여 벼 경영안정대책비

전액 직불금 지급과 한·중 FTA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들은 전남도가 올해 벼경영안정대책비 예산 550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공동이용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자 반발해왔다. 이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영세농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정책인 만큼 전액을 직불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프라임저축銀 이상득측에 수억 로비” 단서 포착

제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이 퇴출당하지 않으려고 새누리당 이상득(77) 의원 측에 수억원대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포착, 곧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지난 29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제축은행 관련 수사를 진

행하는 도중에 이 같은 내용의 첨보를 입수했으며,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해온 이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해당 첨

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합수단은 접수상으로 금품로비가 진행된 시점과 이 의원의 사건기록에 나오는 봉침돈 입금 시점 등이 일치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검토 결과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프라임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는 지난 1월 김선교(57) 전 행장이 3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1면 ‘공천심사 중단’서 계속

민주통합당의 진상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광주·전남 일부 지역구의 공천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광주·전남 3~4개 지역구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 의혹과 관련된 일부 예비 후보들의 공천 배제 설이 제기되고 있다.

공천심사와 선거인단 대리 등록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는 투-트랙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백원우 공심위 간사는 “동구가 제외한 광주·전남 지역 면접 등 공천 심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선거인단 대리 모집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는 최종 공천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선거인단 대리 등록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수사권이 없고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 조사단이 선거인단 대리 등록의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수박걸壑기’식 조사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예비후보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천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거인단 불법 모집에 관련된 일부 예비 후보들의 공천 배제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1.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 2. 한도 - 300~7000만원
- 3. 금리 - 연~5.9%미만 (천만원당 月5만원미만)
- 4.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영장기능)

◆과다대출, 연체(등급미달)자도 가능!!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 될 수 있음

한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제제스 · 기관내부정관리 청탁자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비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 담당 010-5554-2100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셋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저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로,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기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암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득,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광주지사 영업사원 모집 062-606-9006
순천지점 영업사원 모집 061-722-1930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6

영업팀장 (문재준) 010-5311-0086

2012-1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험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애간제

◆ 교육일시 : 2012년 3월 5일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수 강 르 : ① 등록금 :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 50,000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사증명서 1부 ※ 전형료 : 5,000원

◆ 혜 택 :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증명서 지급

② 본교 종교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 가능)

■ 교육일시(총100시간) ▶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출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자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

###